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부모-자녀의 성격 및 행동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행동

- U&I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현 용 찬

2014년 2월

부모-자녀의 성격 및 행동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행동

- U&I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정 환

현 용 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현용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2월

【국문초록】

부모-자녀의 성격 및 행동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 행동

- U&I를 중심으로 -

현 용 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환경에서 부모와 중학생 자녀의 성격과 행동 일치여부에 따른 중학생 자녀의 행동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와 자녀의 성격유형 분포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와 자녀의 행동유형 분포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부모 자녀의 성격유형에 따른 행동유형의 분포는 차이가 있는가?

넷째, 부모와 자녀의 성격유형 일치 여부에 따른 자녀의 행동유형의 분포는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부모와 자녀의 행동유형일치 여부에 따른 자녀의 행동유형의 분포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내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U&I학습유형 검사를 하여 부모 240명 중학생 자녀 240명 총48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부모와 자녀의 성격유형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는 규범형이 49.6%로 가장 높고 자녀는 행동형이 40.4%로 높다. 중학생의 성별에도 남학생은 행동형이 43.7%로 가장 높고 여학생은 이상형이 45.6%로 가장 높다.

부모와 자녀의 행동유형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족형이 부모는 59.2%와 중학생 자녀는 31.7%로 모두 높다. 부모 자녀의 성격유형에 따른 행동유형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범형의 경우 부모는 69.7% 자녀는 55.6%로 모두 높다.

부모와 자녀의 성격유형 일치 여부에 따라 자녀의 행동유형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족이 일치 36.4% 불일치는 29.9%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의 행동유형일치 여부에 따라 자녀의 행동유형의 분포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만족형의 분포는 일치 78.9% 불일치 16.9%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행동유형불일치는 고군분투형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부모-자녀의 성격유형의 분포의 차이는 성인이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하여 갈등의 원인이라 생각 할 수 있다. 행동유형 분포의 차이는 성인에 비하여 중학생 자녀의 학습방법의 경험 또는 학습방법의 도움을 받은 경험의 차에서 오는 것임을 시사한다. 부모-자녀 모두 규범형에서 만족형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 규범과 학교의 규칙에 잘 적응하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 할 수 있다.

성격유형의 일치여부에 따른 중학생 자녀의 행동유형은 만족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행동유형의 일치에서 중학생 자녀의 만족형이 뚜렷하게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행동의 일치가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생활의 만족에 기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3
II. 이론적 배경	5
1. 성격 및 성격 유형	5
2. 학습	11
3. 학습유형	12
4. U&I학습유형의 배경과 특성	17
5. 선행연구 고찰	37
III. 연구 방법	40
1. 연구 설계모형	40
2. 연구 대상	40
3. 측정 도구	41
3. 자료 분석	41
IV. 연구결과 및 해석	42
1. 성격유형 분포	42
2. 행동유형 분포	43
3. 성격유형에 따른 행동유형분포	45
4. 부모-자녀의 성격유형 및 행동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의 행동유형	48

V. 결론 및 제언	50
1. 결론	50
2. 제언	53
참고문헌	55
Abstract	60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자의 분포	41
<표 IV-1> 부모 성격유형 분포	42
<표 IV-2> 중학생 자녀의 성격유형 분포	43
<표 IV-3> 부모 행동유형 분포	44
<표 IV-4> 중학생 자녀 대표행동유형	45
<표 IV-5> 부모의 성격유형과 행동유형	46
<표 IV-6> 중학생 자녀의 성격유형과 행동유형	47
<표 IV-7> 부모-자녀의 성격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의 행동유형	48
<표 IV-8> 부모-자녀의 행동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의 행동유형	49

그림 목차

[그림 Ⅲ-1] 연구 설계 모형	40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들은 흔히 자신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자녀에 대하여 ‘내 자식인데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면 말을 하지 않고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 ‘부모의 말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는 등 멋대로 하며 통제가 안 된다.’ 고 한다.

나와 다른 인격체이고 다른 특성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자녀를 보고 판단하는 데서 오는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또한 어른들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기원전에도 있었다. 기원전 5세기 후반의 소크라테스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아이들은 폭군과도 같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대들고 게걸스럽게 먹으며 스승을 괴롭힌다.’고 하였다. Catherine Collin(2012)에 의하면 Francois Dolto는 관찰을 통하여 어른들은 자신들도 한때는 어린애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할 때가 많았다고 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개성적인 성향을 추구할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라고 생각했다(이경희, 박유진, 이시은 역 2012).

개인의 성향을 이해하고 바른 학습을 한다면 지능 또한 발달한다는 연구도 있다. Cattell(1943)은 ‘g’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의 지능, 즉 유동성지능과 결정성 지능을 규정하여 이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에 의하면 유동성지능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추상적으로 추론하며 사전지식이나 관습 없이도 사물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20~30대에 절정을 이루고 점점 쇠퇴한다. 또한 결정성지능은 과거의 경험과 학습된 사실로 구축되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축적되어가는 판단 능력으로 평생에 걸쳐 증가하고 대략 65세에 이를 때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그 후부터 차츰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인간의 지능이 환경에 따라 보다 크게 좌우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어 지능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금주(2005)

는 정신지체의 원인은 밝혀진 것만 해도 200여 가지가 되지만 아직도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기질적 혹은 사회 심리적, 또는 두 가지의 결합에 의하여 생겨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유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임신 중 이상 그리고 이상출산과 출산 후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임신 중의 약물과 출산시의 문제 등도 있으나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거나 최저의 문화수준에 처하게 되면 문화실조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문화실조나 지적발달의 지체현상은 환경의 차이가 그 주된 요인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Bloom(1978)은 인간지능발달의 준거연령을 약17세로 보았을 때 지능의 50%는 만4세까지 발달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영양 상태나 지적·교육적 자극 등의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50%까지 지능이 발달되나 그렇지 못한 아동은 그 이하로 지능이 발달 된다(김혜선, 유안진, 2009). 환경에 따라 유전자의 영향력이 달리 나타난다고 주장한 Sigelman & Rider(2003)에 따르면 지능에 대한 높은 유전적 잠재력과 낮은 유전적 잠재력의 비교에서 유전적 잠재력이 낮은 지능발달은 유전적 잠재력이 높은 지능보다 정상 환경에서 약 180%, 자극이 풍부한 환경에서 약 230%의 발달을 보이고 자극이 박탈된 환경에서는 정상 환경의 약 50%이하의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중 풍부한 자극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극 또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풍부한 자극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극은 개인의 기질 성격에 따라 바른 자극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인간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학문은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이다. 심리학은 환경이 인간행동을 작동하는 원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교육학은 인간발달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 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학은 부정적 사회 환경의 차단과 긍정적 사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 환경에 관심을 갖는다(송대영, 최현섭, 2001). 다양한 학문적 측면에서 아동의 성격을 이해하고 성격에 따른 행동과 학습양식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동 발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자녀의 성격일치여부, 행동유형일치에 따른 자녀의 행

동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성인인 부모의 성격유형과 행동유형과 자녀행동을 살펴보고, 부모 자녀의 성격유형과 행동유형 일치여부를 분석한 후 일치여부에 따른 행동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모자녀의 성격일치도와 행동유형과의 관계를 연구할 목적으로 제주도내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U&I검사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와 자녀의 성격유형 분포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와 자녀의 행동유형 분포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부모 자녀의 성격유형별 행동유형의 분포는 차이가 있는가?

넷째, 부모와 자녀의 성격유형 일치 여부에 따라 자녀의 행동유형의 분포는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부모와 자녀의 행동유형일치 여부에 따라 자녀의 행동유형의 분포는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학습성격유형

본 연구의 학습성격유형은 U&I학습유형검사 결과에서 나온 성격유형을 말한다. 본 검사에서의 대표 성격유형은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이다. 이를 조합한 조합성격유형은 행동-규범형, 행동-탐구형, 행동-이상형, 규범-탐구형, 규범-이상형, 탐구-이상형, 행동-규범-탐구형, 행동-규범-이상형, 행동-탐구-이상형, 규범-탐구-이상형으로 나타난 총 14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은 학습성

격유형이라 하고 성인은 성격유형이라 하나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의미이다. 학습행동유형은 본 연구에서는 14가지 유형 모두 다루지 않고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의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을 대표 성격유형으로 보고 4가지의 성격유형으로 한다.

2) 학습행동유형

U&I행동유형검사 결과인 반항형, 완벽주의형, 고군분투형, 잡념형, 만족형, 외곬형으로 나타난 6가지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경우 학습행동유형 이라 한다. 성인의 경우 행동유형이라 하여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의미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성격 및 성격유형

Catherine collin(이경희, 박유진, 이시은 역, 2012)에 따르면 기원전 450년경 로마의 철학자이자 의사인 Empedokles는 네 가지 기본원소인 흙(차고 건조한 성질), 공기(따뜻하고 습한 성질), 불(뜨겁고 건조한성질), 물(차고 습한 성질)의 여러특성이 모든 물질에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400년경 히포크라테스는 네 가지의 체액에 이 원소들이 특성이 존재한다고 여겼다. 네 가지 원소에 바탕을 둔 의학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200년 후 Claudius Galen은 체액설 이론을 성격의 측면으로 확대 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성격에 대한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인 개인의 성격(性格, personality, individuality, character)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성(personality)에서의 person의 어원은 라틴어 persona에서 왔다. 웨브스터 사전에는 persona란 원래 무대에 오르는 배우가 쓰던 탈(가면)의 뜻이었다. 그것이 등장인물(personage)의 뜻으로 바뀌고 또 극에 있어서의 맡은 역(part)을 의미하게 되고 다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뜻인 사람(person)으로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라틴말 persona의 어원은 Etruria(옛 이탈리아 서쪽에 있던 나라)의 페르수(phersu-역시 가면 ‘탈을 쓴 사람’의 뜻)에서 온 것이다. parson은 ‘성직자’다. 성직자의 전신은 주술사였다. 그리고 주술사는 반드시 탈을 쓰기 마련이었다. 그럼 탈을 의미하던 말인 person-> persanal-> personality가 어째서 성격의 뜻이 되었을까? 어떤 탈을 쓰고 나타난 배우와는 탈의 생김새부터가 다를뿐더러 동작도 대사도 다르다. 거기서 다른 배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만의 것’이 있게 되었다. ‘그 사람만의 것’이란 곧 개인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personality를 ‘개인성(個人性)’이라고 번역했을 때 그것은 어떤 사람의 전체적 성질, 또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곧 ‘통일되어 있는 개인’ 여기

에 악센트가 있다. 이것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여 지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유일한 지속적인 자아(自我)로 보게 되면 '인격(personality)'이 되고 다른 개인성과 비교되어서 그 특질이 문제될 때에, 다시 말하면 '통일된 개인'이란 면에 중점이 놓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 사람만의 것'이라는 측면이 강조됐을 경우엔 '개성(personality, individuality)'이 되는 것이다. 이 개성이 바로 '성격(character)'인 것이다. 성격 character의 어원은 라틴말 character이다. 라틴말 character는 무엇을 '표시하는 연장'이란 뜻이다. 이 말은 그리스의 kharaker에서 왔는데 동사 카라사인(kharassein)은 '날카롭게 하다' '잘라서 자국을 내다' '조각하다' '새기다' 등의 뜻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성격은 신이 새겨준 '그 사람만의 표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성격은 변할 수 없는 유전 인자와 변할 수 있는 환경 인자가 종합 통일된 것을 현재는 '성격'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전 인자'란 '기질(anlage)'를 말한다. '기질'이란 유전적, 생물학적인 또 감정적인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환경인자'란 후천적인 경험, 생활환경, 사회적 조건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 자질, 특히 성격은 유전인자에서 시작된다. 이 유전적인 기질, 소질 등이 성격형성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소질은 끊임없이 환경인자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성격에 있어서의 후천적인 면을 형성해 나간다. 성격의 설명은 이처럼 기질을 강조하여 인간의 내적인 면에 초점을 두는 것과 상황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다. 이에 대하여 Previn(1980)은 성격이란 상황에 대한 일관된 패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일련의 특성들이다. 이러한 성격은 오래전 성격심리유형론으로 발달하였다.

기원전 4세기경의 Hippokrates가 주장한 4체액 설을 Galen은 4대 기질이론으로 수정 발전시켰다. 그가 사람들의 일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묘사한 특성을 살펴보면 담즙질(Choleric)은 체내에 황담즙의 분비가 왕성하므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세부 특징은 성미가 까다롭다, 불안정하다, 공격적이다, 충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쉽게 노한다, 정서적 흥분이 빠르고 강하다, 용감하다, 성미가 급하다. 다혈질(Sanguine)은 열정이 충만한 것이 특징인데 혈액의 농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세부 특징은 사람을 쉽게 사귀다, 말이 많다, 쉽게 감동된다, 팔팔하다, 태

평하다, 정이 많다, 정서적으로 흥분이 빠르다, 항상 유쾌하고 사교적이다, 정서적 반응이 빠르나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지도력이 있다. 우울질(Melancholic)은 흑담즙의 과다한 기능 때문에 슬픔에 잠기는 경향이 있다. 세부특징은 근심걱정이 많다, 완고하다, 착실하다, 비관적이다, 내성적이다, 비사교적이다, 말이 없다, 정서반응이 느리다, 신체반응이 느리며 약하다, 몸이 약하다. 점액질(Phlegmatic)은 점액이 많으며 이로 인해 행동이 느리고 감정이 둔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특징은 수동적이다, 주의가 깊다, 생각이 깊다, 자제력이 있다, 믿음직스럽다, 냉정하다, 냉담하고 정서반응이 느리며 약하다, 조용하며 둔감하다, 인내심이 강하다, 반응은 느리고 강하다. 이러한 Hippokrates와 Galen의 이론은 훗날 유럽에서 발전한 성격이론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

Jung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발달한 심리유형론은 Francesco, Paolo와 Olivia(2005)의 유형론의 발달에 의하면 Adickes는 독단적(Dogmatic), 회의적(Agnostic), 전통적(Traditionl), 혁신적(Innovative)으로 4가지의 세계관으로 나누었고 Kretschmer(1920)도 지각과민증(Hypersthetic), 무감각증(Anesthetc), 우울증(Depressive), 조울증(Hypomanic) 4가지로 이상행동의 기질을 나누었다. Adler(1920)는 불화가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인정하기, 힘을 행사하기, 봉사하기, 복수하기의 4가지의 그릇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Spranger(1920) 또한 종교적, 이론적, 경제적, 예술적으로 4가지로 평가 하였다. 이러한 20세기 초의 Adickes, Kretschmer, Adler, Spranger 역시 앞서 설명한 Hippokrates가 나누려 했던 개념을 부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황운구, 2007 재인용). 1930년경 행동주의 심리학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으나 다시 1950년대에 Isabel Briggs Myers는 Katharine Cook Briggs와 함께 Jung의 유형론을 바탕으로 Myers-Briggs심리유형검사인 MBTI를 고안했다. 성격과 기질에 대하여 Jung의 심리유형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만들어진 MBTI는 인식과정을 인식(S: Sensing)과 직관(N: iNtuition)으로 구분하여 사물, 사람, 사건, 생각들을 인식하게 될 때 나타나는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하며, 판단과정은 사고(T: Thinking)와 감정(F: Feeling)로 구분하여 인식한 바에 의하여 결론을 내는 방법들 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는 태도에 따라 외향(E: Extraverion)과 내향(I: Introversi-on) 및 판단(J: Judging)과 인식(P: Perceiving)

으로 구분하여 심리적인 에너지의 방향 및 생활양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Mayer, McCaully, 김정택 외 2인 역, 1994). 이러한 성격유형이 선천적인지 성장과정에서 형성되는지에 대하여 Jung는 밝히지 않았지만 선천적인 것으로 믿는 쪽이다(김혜경, 2004). 성격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신 분석학적 입장, 행동주의적 입장, 인본주의적 입장을 살펴본다.

1) 정신분석학적 성격이론

Freud는 정신분석학 이론을 정립시키는 과정에서 의식수준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 하였다. ‘의식’수준은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이며, ‘전의식’은 이용 가능한 기억, 어느 한순간에는 의식되지 않으나 조금 노력한다면 의식될 수 있는 경험을 말하며, ‘무의식’은 인간정신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을 말한다. 무의식은 가설적,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제시될 수 있고 증명 가능한 현실이라고 주장 하였다. Freud는 우리의 의식하지 못하는 충동과 욕구가 인간의 행동의 중요한 부분을 만들고 결정한다고 믿었다. 무의식은 전혀 의식되지 않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주로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 후 성격의 구조를 이드(id), 자아(ego), 초자아(super ego)를 제시하였다. 인간의 본능적인 핵심을 나타내는 이드(id)는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이며, 쾌락을 추구한다. 또한 반사행동과 일차적 과정의 사고를 통해 본능적 충동의 만족을 얻는다. 자아는 성격 중 합리적인 요소를 나타내며, 현실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최후에 형성된 초자아는 두 개의 하부구조 즉 양심과 자아이상을 가진다. Freud의 동기이론은 본능에 기초를 두고 긴장의 해소를 추구하는 내적 흥분상태라고 정의 하였다. 본능은 원천, 목적, 대상, 에너지의 네 가지의 속성을 갖는다. 심리성욕의 발달은 태어나면서 시작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생물학적 단계인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생식기를 통해 발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용필, 2002: 재인용).

2) 행동주의적 성격이론

Skinner(1948)는 성격을 행동주의적 접근방법으로 연구하여 인간이 내적인 자

율적 존재로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생리 유전적 방법으로 행동을 설명하는 것도 배격하였다. 그는 행동이 법칙적으로 결정되면 예측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학문적 관심을 조작적 행동, 조작적 조건화에 관심을 두었다. 유기체로부터 끌어내는 것 보다는 유기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조작적 행동, 조작적 조건화 연구를 통하여 행동을 수량화 하였고, 강화계획, 조건강화 인자, 혐오자극 등의 법칙적 통제 등을 발표하고 점진적 접근을 통한 조작적 행동 조형을 증명하였으며 새로운 자극에 대한 적절한 반응(자극일반화, 자극병별화)을 발견하였다.

Murray는 성격이란 생물학적으로는 신체의 기관 또는 높은 차원의 신체조직을 통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성격은 뇌 속에 위치하며 ‘뇌가 없으면 성격도 없다.’고 주장하며 성격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발달의 과정을 나타낸다고 했다. Murray의 ‘욕구’ 이론은 성격평가에 영향을 끼쳤지만 검증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

Alber Bandura(1973)는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내적과정과 환경적 요소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회학습이론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그의 주요 이론적 개념은 모델링, 즉 관찰을 통한 학습의 개념이다. 사회학습이론은 전통적 행동주의 이론에 내적 사고 과정인 인지구조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사회학습이론에서 외부강화는 흔히 개인에게 정보와 유인의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 Albert Bandura는 대리적 강화의 역할 즉 다른 사람이 강화를 받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 사람 자신이 스스로 강화하는 자기강화를 강조하였다. 자기규제에서는 자기관찰, 판단, 자기평가가 중요시된다. 결국 자기규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학습되는지 어떻게 행동이 자기 생산적결과를 통하여 칭취되는지 자기강화체제가 유지되는 조건 사람이 자신을 벌하는 이유 그리고 자기규제의 과정에 있어서 자기평가와 자아개념의 역할 등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 있다(김용필, 2002: 재인용).

3) 인본주의적 성격이론

Allport(1937)의 이론은 인간행동을 인본주의적 연구방법과 성격주의 적 연구방

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성격을 인간 안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했다. ‘무엇’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답변으로, “성격은 각 개인의 정신 신체적 체계 안에서 그의 특징적 사고와 행동을 결정해주는 역동적 조직이다.” 라고 했으며 개인의 내부에 성격은 실재하고 있다. 성격은 “인간의 참모습”을 의미 한다고 했으며 역동적 조직이란 인간행동은 끊임없이 발달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는 개념적 정의를 내릴 때 ‘인격과 기질’이라는 용어를 성격과 동의어로 사용하였으며 성격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한 가장 타당한 분석단위로서 특질을 생각했다. (이훈구, 1983; 김용필, 2002: 재인용).

Kelly는 성격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나 그의 논문에서 성격은 “한 개인의 행동에 관한 우리들의 추상이며 이 추상을 알든 모르든 그의 인간관계의 문제나 특별히 가치 있어 보이는 그 외의 어떤 것에 부수적으로 일반화 시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처음으로 성격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 인간존재의 인위적이고 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성격학자이다. 실제로 성격은 개인이 미래를 예견하고자 사용하는 구성 개념들로 이루어져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가 사용하는 구성개념들을 아는 것 이러한 구성개념아래 포함되어있는 사상들이 구성개념들이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조직되어 한 구성개념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방법 등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타인의 성격을 안다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다. (이훈구, 1983; 김용필, 2002: 재인용).

Maslow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존경받을 만하고 그들은 만약 환경조건이 적당하기만 하면 그들의 잠재능력을 실현해 나가려한다”고 하였다. Maslow는 성격에 대한 인본주의입장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의 ‘자아실현’ 성격이론에서 견해를 잘 밝히고 있다. Maslow는 인간의 욕구들은 타고난 것이며 그것들은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일종의 계층적 단계로 배열되어있는 것으로 가정했다. 욕구 단계에서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욕구가 나타나 인간의 행동을 활성화 하는 우세한 힘으로 등장한다고 했다. 강도의 순서에 따라 욕구 동기는 (1) 생리적 욕구 (2) 안전의 욕구 (3)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4) 자존감의 욕구 (5) 자아실현욕구이다. Maslow의 이론에서 인본주의적 특성은 자아의 최고의 만족인 자아실현의 단계이다(이훈구, 1983; 김용필, 2002: 재인용).

2. 학습

학습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2008)에 의하면 개인의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 즉, 하나의 유기체가 자신의 행동을 지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을 학습이라고 일컫는다.

학습된 행동에는 연상적 또는 조건부 학습, 주체가 어떤 특정한 색조처럼 한정된 감각적 특질에 응답하는 변별학습, 반복되는 자극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습관화, 관련된 특질에 따른 경험분류 과정인 개념형성, 문제해결, 감각적 지각에 대한 과거의 경험의 효과인 지각학습, 감각적 신호에 대한 신경근(神經筋) 반응 유형의 발달인 정신운동 학습 등이 있다. 모방, 통찰력학습, 각인 등은 학습의 또 다른 형태이다. 17세기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 학습 이론가들은 어떤 보편적 원리가 모든 학습과정을 지배하고 그러한 원리가 어떻게, 왜 작용하는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려는 공통적인 욕구를 갖고 있었다. 모든 유기체의 행위가 물리학에 근거를 둔 통일된 법칙체계 아래서 이해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론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고 포괄적인 이론이 확립되지 않자 심리학자들은 어떠한 단일 학습이론도 적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심리학의 모든 지식을 커다란 하나의 원리로 통합하려는 마지막 시도는 1930년대에 있었다. E. R. Gurthrie는 반응이 학습에서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단위라고 주장했다. C. L. Hull은 보상으로 고무되는 훈련된 자극-반응(S-R) 활동의 결과인 '습관의 힘'이 학습의 본질적 양상이라고 주장했다으며, 그는 이것을 학습의 점진적 과정으로 보았다. E. C. Tolman은 학습이란 행동에서 추론되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이 주장한 여러 논지가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남아 있다.

연상은 이런 논지 중 하나이다. 연상의 본질은 하나의 주체가 환경에서 어떤 것을 지각하고(감각), 그 결과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관찰력(관념)에 있다. 관념에 이르는 연상은 공간이나 시간에 있어서 대상이나 사건의 근접성, 유사성, 빈번도, 현저성, 관심 끄는 정도를 모두 포함한다. 이전에는 관계가 없던 자극을 어떤 특별한 반응과 연결 짓는 동물의 능력인 연상학습은 주로 강화가 새로운 행동양식을 구체화하는 조건반사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최초의 유

명한 조건반사 실험은 19세기 러시아의 생리학자 Ivan Petrovich Pavlov가 개가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는 조건반사를 실험한 것이었다. 그러나 S-R 이론은 많은 학습된 현상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했고, 주체의 내면행동은 무시하면서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E. C. Tolman은 연상이 자극과 주관적인 감각인상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좀 덜 '객관적인' 학자집단을 이끌었다.

오늘날 통용되는 논지는 강화인데, 이것은 어떤 주체의 행위가 반복되어 보상 받았을 때 주체의 행동이 조성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된 개념이다. 강화의 논리적 작용에 대해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학습에 있어서는 다른 고려사항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연상이론의 보편타당성을 무시해 버린다. 예를 들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중요한 학습과정은 환경에서 관계된 것들을 단순히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재구성을 포함한다고 믿는다. 언어 심리학자들은 언어 학습은 너무 많은 단어와 그들의 조합을 포함하기 때문에 연상이론에 의해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없다고 한다. 그 대신 이들은 어떤 기본적인 조직구조, 즉 유전학적으로 이어받는 선천적 '문법'이 언어 학습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 학습이론의 또 다른 쟁점은 행동에 있어서 동기의 역할, 이미 학습한 것과 앞으로 학습할 것 사이의 훈련의 전이, 학습의 단계, 회상·망각·정보재생의 과정과 본질 등을 포함한다. 행동발생학은 학습된 행동과 유전된 행동 사이의 차이 같은 주요쟁점을 설명했다. 다른 과학자들은 상·인지·의식·의지와 같은 비(非)수량 개념들을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학습은 개인의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 즉, 하나의 유기체가 자신의 행동을 지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을 학습이라고 일컫는다고 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한다.

3. 학습유형

학습유형이 지능과는 관련이 없지만 학생들의 학습결과와 성취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의 개념이다(Woodfolk, 1995). 학습유형(Learning Style)의 용어는 1954년 Theln이 사용을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초반 미국전역에서 광범

위하게 사용되었다(우성자, 2006). 인지주의이론에서 시작된 학습유형의 개념은 학습유형과 인지유형을 동의어로 봤으나 Allport가 적응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지유형(Cognitive Style)의 용어를 사용하고, Theln이 그룹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학습유형(Leaning Style)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학습유형은 여러 요소로 구성된 개념으로 그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Pask(1976)는 학습자를 인지적 특성에 기초한 학습유형을 분류하여, 전체적학습자(Holist), 순차적학습자(Serialist), 융통적학습자(Versatile)로 분류하여 인지적 사고활동에 따른 학습전략과 학습유형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Reichmann & Grasha는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기초하여 독립적 학습자, 의존적 학습자, 협동적 학습자, 경쟁적 학습자, 참가적 학습자, 회피적 학습자로 분류하여 학습자들이 얼마나 교수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교수자 동료와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분류하였다. Kolb(1999)는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분산자(Diverger), 융합자(Assimilator), 수렴자(Converger), 적응자(Accomdator)로 분류하여 인지적 특성과 깊은 관계가 있고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는지 행동하며 실천하는지 체계적 사고를 통해 정돈된 사고를 전개하는지 상상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의 인성적 특성을 반영하여 문제해결유형으로 제시하였다. Dunn(1981)은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심리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환경적 요소, 정의적 요소, 사회적 요소, 신체적 요소 심리적 요소로 분류하여 유전과 과거경험, 그리고 개인의 경향과 심리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다.

Gregorc(1987)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작용에 관심을 두어 어떻게 사물을 지각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독특하고 관찰될 수 있는 행동으로 지속성이 유지되는 심리적인 특성이라 주장하였다.

학습유형에 따른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습자에 맞도록 학습지도를 하면 학업성취수준이 높아진다고 Kirmsky(1982)등이 주장하였다. Stice(1987)는 화공과생에게 Kolb의 학습양식검사를 실시하여 융합자와 적응자로 판단된 이들에게 그에 적합한 학습방법을 한 학기 동안 수업한 결과 성적이 많아 올랐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arns(1991)는 학습자 자신이 학습유형에 대한 정보를 알고 학습유형을 사용 했을 때 학업성취도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성별에 따른 학습유형은

Katz(1988)는 그들의 연구에서 그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신기철(1981)등은 학습유형이 수업의 질의 개선과 학업성취, 학습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변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편안한 방법으로 학습할 때 더 쉽게 배우고 그것을 오래기억하고 필요할 때 인출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차에 따라서 편안한 상태가 다르다. 즉 선호하는 학습형태가 다르다. Dunn과 Giggs(2000)는 이러한 개인차로 인하여 나타나는 형태를 style(유형) 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학습유형(Learning Style)은 학습자의 개인차로 인하여 생긴다고 할 수 있다(양철기, 2007, 재인용).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습유형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하였다(전현경, 2002).

Read(1984)는 학습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첫째,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에 기초한 관점, 둘째, 학습자의 정의적 기질적 특성에 기초한 관점, 셋째, 학습자의 심리 운동적 관점으로 나누고 네 번째는 이 세 가지의 특성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성에 근거한 관점들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에 기초한 관점에서 인지적 특성은 정보의 인출, 수집, 처리패턴을 포함한다. 즉 정보를 지각하고 처리하여 기억하는 정보처리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이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방법적 특성을 학습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에 기반 한 대표적인 학습유형 검사 도구는 Schmeck(1983)의 ILP(Inventory of Learning Process), Letteri(1980)의 CSD(Cognitive Style Delinators), Hill(1976)의 CSP(Cognitive Style Profile), Nunely(2002)의 MEG(Magneto Encephalo Graphy)등이 있다. 권선방(2008)을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Schmeck(1983)의 ILP에서는 Schmeck(1983)가 심리학 배경을 바탕으로 학습유형을 분류하는 학습과정검사(Inventory of Learning Process)를 개발하였다. 그는 학습유형이란 학습과제의 특성에 관계없이 특정한 학습전략을 시도하려는 학습자의 경향성이라고 하였다(임창재, 1994). 학습과정검사는 아동들의 행동 및 개념화 과정을 검사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Letteri의 CSD는 인지양식도해(Cognitive Style Delinators)모형에서 학습과정

을 정보 저장과 검색 등의 정보처리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정보처리는 지각에서 장기기억까지의 범위를 6단계가 있다고 본다. 초기에는 장 독립 대 장 의존, 산발적 탐색 대 집중적 탐색, 범주화의 넓이, 인지적 복잡성, 반성적 대 충동적, 보편화 대 정교화, 관대함 대 편협함의 7개의 서로 다른 인지영역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Hill의 CSP에서는 학습유형 분야의 초기 이론가들 중 한사람으로 인지양식 프로파일(Cognitive Style Profile)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는 학습유형의 의미를 개인이 어떤 정보를 지각하여 그 나름대로 처리하는 특유한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McGregor & Elliot, 2002). 그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이론적 상징들의 범주는 청각과 시각적 범주로 구분되고 각 범주는 언어적, 양적상징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뇌 기반학습의 대표적인 학자인 Nunely는 Magneto Encephalo Graphy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학습유형에 따른 뇌의 활성화 상태를 측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람에 따라 자극에 대한 활성화의 영역이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를 특정 감각양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결과를 교육장면에 활용하고 있는 각종 측정과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인간의 인식, 사고, 문제해결, 창의성 등에 대해 신경과학 및 인지과학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대비 되는 뇌 기반학습이 부각되고 있다(이정모, 2003).

둘째, 학습자의 정의적 기질적 특성에 기초한 관점에서 정의적 특성에는 흥미, 태도, 자아개념, 동기, 인성 가치관과 통제소비, 학교에 대한 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정의적 특성은 지적특성과 명백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비록 정의적 특성이 서로 중복되는 요소들이 있지만 동기나 주의력, 인성이 인지적인 정보처리 방법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학습유형을 결정하게 된다(김은정, 1999). 학습자의 정의적 기질적 특성에 기초한 관점은 Keirsey의 성격유형, U&I 학습유형, Grasha와 Riechmand의 GRSLSQ, Kolb의 학습유형 등을 들 수 있다.

Keirsey는 성격유형을 기질별로 구분하고 기질별 학습양식을 연구하였다. Keirsey는 Jung의 이론에 근거하여 성격유형을 분류하였지만 Wyers-Briggs(1987)의 S, N, T, F의 심리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SP(디오니소스형), JS(에피메테우스형), NF(프로메테우스형), NT(아폴로형)의 심리적 기질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기질이론이 유화, 결합, 연결보다는 개별화, 분리, 분열에 의하여 발달된다고 보았다. Keirsey는 4가지의 기질마다 특징에 맞게 학습자의 이름을 다시 붙였다. 즉 SP형은 감각기능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인식하는 실제형이며 자발적인 학습자, SP형은 구체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과 질서를 중시하는 학습자, NF형은 의미와 정체성을 추구하지만 관계 지향적인 학습자, NT형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을 추구하는 학습자로 명명하였다.

U&I 학습유형은 본 연구의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는 Keirsey와 Heacox의 연구를 바탕으로 김만권, 한종철, 이기학(2002)이 학습 시 보일 수 있는 행동양식을 종합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Grasha & Riechmand(1974)이 개발한 학습유형인 사회적 상호작용 척도(Social Interaction Scable)로 분류된다. 이 검사는 수업전략이 아닌 학습에 관한 학생들의 태도, 교사나 동료학생에 대한 견해, 교실수업에 대한 반향 등의 세 가지 교수차원에 초점을 둔다. 이 세 가지 검사는 양극적 차원 즉, 참여 대 회피, 경쟁 대 대립, 그리고 독립 대 의존으로 이루어져 있다.

Kolb(1999)는 경험학습 과정과 관련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습자가 자신들의 고유한 학습유형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Kolb의 학습유형 검사모형의 개념적 체계는 실험적 학습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모형의 핵심은 그전의 경험이 새로운 경험을 선택하는데 작용한다는 가설에 기반 하여 새로운 개념이 기존의 경험에 의하여 해석되는가를 4가지의 단계로 구분하여 즉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은 관찰과 숙고의 기준이 되고, 그러한 관찰은 행동을 위한 새로운 암시를 추론하게 하는 이론으로 동화되며, 이러한 암시는 새로운 경험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안내자로서 순환관계로 전개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학습자의 심리 운동적 특성에 기초한 관점에서 Dunn(1996)등은 학습유형에 있어서 심리 운동적 학습자의 특성을 생리적 요소와 환경에 대한 선호로 나누어 학습과정에서 신체 생리적 리듬과 환경에 대한 선호로 나누었다. 이는 학습자의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학습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그러나 심은정(2001)에 의하면 실제로 신체 생리적 요소와 환경에 대한 선호들은 인지적인 학습유형을 이루는 정보처리 방법이나 사고의 깊이, 그리고 정의적인 학습유형을 구성하는 교수 학습의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스스로 학습유형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외에도 두 가지 이상의 특성에 근거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4. U&I 학습유형의 배경과 특징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학습유형은 U&I(Uprise & Improve)학습유형이다. ‘자기이해를 통한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학습유형검사는 학습행동에 관한 Dine Heacox와 성격론자인 David Keirse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심리와 관련된 김만권, 한종철, 이기학(2001)이 임상경험을 결합하여 성격에 따라 개인이 보일 수 있는 행동양식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개인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되었다. 여기에서의 학습은 광의의 개념으로 2001년 국내에서 표준화 작업을 통해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행동 및 태도를 다루는 U&I학습행동유형과 성격적인 부분을 다루는 U&I 학습성격유형이다.

학습행동유형은 Dine Heacox가 말한 9가지유형 중 싫증형, 의존형, 적당형은 제외 시켜 6개의 하위척도를 측정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이유는 반항형과 싫증형을 통합시켰다. 문항선정 변량분석 시 두 유형 간에는 문항이 유사하였고 실제로 반항형과 싫증형의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번째, 의존형 사례가 너무 적어서 의존형에 해당하는 문항의 선정이 의미가 없었다. 세번째, 만족형과 적당형도 반항형과 싫증형처럼 거의 구별되지 않았다. 그래서 적당형을 만족형으로 통합시켰다(김만권, 한종철, 이기학, 2001). 결과 6개의 하위척도를 가진 학습행동유형 으로. 학습 및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보이고 있는 독특한 행동, 심리적 상태를 진단하는 검사이다.

학습성격유형은 개인의 행동특성, 선호하는 학습 및 업무방식 그리고 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 한다. 하위요소는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으로 기본형이 있다. 이를 다시 조합형으로 하여 총 1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1) U&I학습행동유형

Dine Heacox는 그의 저서 학교성적 끌어올리기(Up from Underachievement) (김만권, 정민정 역, 2004)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그들만의 특성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은 반드시 다음의 9가지 유형 중 한 개 혹은 여러 개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해당되는 유형이 적을수록 성적을 올리는 그만큼 쉬워진다고 주장 하였다. 그가 말한 9가지유형은 반항형, 적당형, 완벽주의형, 고군분투형, 의존형, 잡념형, 싫증형, 만족형, 외골수형으로 그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반항형(The Rebel)

반항형의 학생들은 장래의 희망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직업에 대한 희망사항일 때 더욱 그렇다.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가수, 프로운동선수, 예술가 혹은 연예인이 되기를 희망한다. 부모는 공부를 잘하여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하여 학생의 현재수준보다 높은 과정을 주입하여 한다. 그러면 학생은 공부로부터 점점 멀어져 결국 반항심이 겉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정도 가 되면 부모나 교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처벌을 결정하지만 그럴수록 학생은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커서 독립가기 전까지 계속된다.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이를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반항형의 특징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학교생활과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침에 등교를 하는 것은 주위의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일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조건 자기 생각만 옳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비쳐진다. 그래서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부모나 교사를 비롯한 어른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적당형(The Conformist)

적당형의 학생들은 급우관계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성적보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친구 사이에서 뒤는 것도 싫어한다. 적당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성적이 좋을수록 친구들과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적당형의 학생의 가장 큰 특징은 초등학교 때 성적은 대개 우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성적이 유지된다. 적당형은 원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앞서지도 못한다. 때문에 학습에서 중간쯤의 성적을 유지하는 정도다. 또 어른들이 자기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평범한 학생이 되려고 노력한다.

(3) 완벽주의형(The Stressed Learner)

완벽주의형의 학생의 가장 큰 특징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학생들은 성적에 따라 자존심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1등을 하면 으스스대거나 우쭐해지지만 1등을 못했을 때는 심한 자책감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만일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즉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으며 도

전적인 것보다는 성공확률이 높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칭찬은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자신만큼 높지 않아서 칭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완벽주의형의 학생들은 어제보다 조금 더 좋아진 오늘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최고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일보다는 자책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 변명을 많이 하게 된다.

(4) 고군분투형(The Struggling Student)

고군분투형의 학생은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도 해당 학년 이상의 과제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이나 낯선 과목과 부딪치면 어쩔 줄 모른다. 공부하는 방법, 학습시간과 숙제를 관리하는 법, 학습량을 조절하는 방법과 같은 기초적인 공부 방법을 모르게 때문이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학습 장애와 같은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 학년에 맞는 학습과정을 충분히 따라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실제로는 그 나이와 학년에 맞는 학습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으로 평가받으면서, 학생 자신도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믿게 되어 그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고군분투형의 학생들은 학습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학습 능력의 부족보다는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학교공부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은 마음속으로,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것은 내게 너무 어려워, 옛날에는 똑똑했는데'등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자기에 대한 믿음은 점점 없어지고, 자기가 바라는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 부모와 교사의 기대가 사라지게 되면서, 학생 자신도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게 된다.

(5) 의존형(The Victim)

의존형의 학생의 특징은 스스로 공부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 부모에게 있다.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은 대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로부터 많은 통제와 지시를 받아왔으며, 현재도 그러한 간섭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이 성적이 떨어지면, 그동안 자녀에게 간섭을 해오던 부모는 수시로 교사를 만나고 부모와 교사는 학생의 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하지만 막상 학생은 부모와 교사의 노력을 지켜볼 뿐 별다른 노력을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학생은 자신의 일을 교사 부모에게 모두 맡기고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방관하게 되어 버린다.

의존형의 학생들은 학교성적이 낮은 것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에 대한 변명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화요일에는 체조 실습이 있어”, “나에게는 시간이 없어”, “그 숙제는 너무 어려워” 등 온갖 핑계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를 낸다.

(6) 잡념형(The Distracted Learner)

잡념형의 학생은 사적인 문제로 학교공부에 영향을 받는 경우이다. 이들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것, 동생이 태어나는 것,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혹은 재혼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 가족 내에 누군가 병에 걸리는 경우 등 주위 환경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즉 심리적 갈등을 많이 하고 항상 주위가 산만하다. 또 이들은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공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잡념형의 학생들은 교사나 부모, 친구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로 인해 매우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항상 시간에 쫓긴다고 생각한다. 과외, 동생을 돌보는 것, 집안일 등으로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7) 싫증형(The Bored Student)

싫증형의 학생들은 매우 뛰어난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 같은 또래의 학생들보다 아주 높은 수준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정해진 진도를 따라가다 보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너무 쉽게 느껴져서 자기가 우수하다고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우수한 성적이 나오는 생활을 반복되다보니 공부는 점점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나쁜 학습 습관이 형성되어 버린다. 이와 반대로 실패가 두려워 학교 공부에 대하여 싫증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너무 어려워서 실패하는 것보다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유형은 유사 싫증형이 있다. 이들은 열심히 하다가도 포기하고 싫증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자기방어를 준비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실망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싫증형의 학생인 경우는 먼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 인지를 살펴야 한다. 어떤 경우는 노력 부족에 대한 근거로, 어떤 경우는 자신이 공부를 못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방어적인 행동으로 보이거나 혹은 학습 내용이 너무 쉬워서 싫증을 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싫증형의 주요특징은 학생들 대부분은,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매우 뛰어난 성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 교과에 대해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 수준에 맞춰 공부를 계속하게 되어 곧 학습에 싫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8) 만족형(The Complacent Learner)

만족형의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나 공부 내용에 만족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현재 자신의 성적에 흡족해하며, 학교생활도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이 만족해하는 성적이 부모나 교사의 기대치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사실이다. 부모나 교사가 보기에 이 학생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훨씬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만한 능력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 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어떤 계기가 없는 한 그런 마음을 스스로 먹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성적보다 부모나 교사가 생각하는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비현실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부모나 교사의 가치관이 학생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족형 학생들의 특징은 부모나 교사가 높은 수준의 성적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면,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거나 아예 회피하기도 한다. 때로는 부모나 교사의 잔소리를 참아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기도 한다. 그런데 만족형 학생들은 부모나 교사가 학교성적에 따라 원하는 것을 보상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전력을 다해 공부하기도 한다.

(9) 외골수형(외곶형)(The Single-Side Achiever)

외곶수형의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특정 과목에만 관심을 두고 그 과목만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골수형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기 전에 수업의 주제, 교사의 강의 방식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만약 수업이 지루하거나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외골수형의 학생들의 특징은 한쪽 과목으로만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잘만 지도하면 자기의 분야에서 크게 이름을 떨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생각과 행동에 융통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에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주목하고 깊이 피고 들지만, 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2) U&I 학습성격유형

Keirse & Bates(1978)의 기질론에 의해 학습성격유형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국에서는 연우심리연구소 김만권 대표가 우리나라에 맞게 재해석을 하여서 사

용하고 있다. Keirsey의 이론적 배경은 MBTI 성격검사의 성격이론으로 이 이론을 전개시켰다. MBTI 성격심리 이론에서 4가지 기질이론과 매우 유사하다. MBTI 성격 검사에서 16가지의 성격심리 유형이 너무 많고, 4가지의 쌍 중에서 한 가지 만 차이가 나면 구분이 쉽지 않아 매우 어렵다. David Keirsey는 성격유형을 기질(temperament)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질별 유형을 연구하였다. 초기에는 MBTI의 SP기질로 구체적인 사실을 감각기능을 이용하여 인식하는 실체적이며 자발적인 학습자(Actual-Spontaneous learner)로, SJ기질은 구체적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과 질서를 중시하는 학습자(Actual-Routine learner)로, NF기질은 의미와 정체성을 추구하나 관계 지향적 학습자(Conceptual-Global learner)로, NT기질은 이론적이고 논리적 개념을 구축하는 학습자(Conceptual-Specific learner)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이후 Keirsey와 Bates(1978)에서 기질들을 SP기질을 디오니소스적(Dionysian)기질로, SJ기질을 에피메테우스적(Epimethean)기질, NT기질을 프로메테우스적(Promethean)기질 그리고 NF기질을 아폴로적(Apollonian)기질로 다시 명명하였다. Golay(1982)는 Keirsey & Bates(1978)의 4가지 기질별로 나눈 성격유형을 이용하여 학습 상에서 명백한 다른 특징을 보이는 4가지 서로 다른 학습유형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고, 디오니소스형 기질은 행동형(Actual-Spontaneous Learner), 에피메테우스형 기질은 규범형(Actual-Routine Learner), 프로메테우스 기질은 탐구형(Conceptual-Specific Learner), 아폴로 기질은 이상형(Conceptual-GlobalLearner)으로 학습유형을 분류하였다. Keirsey(2004)는 다시 이를 기능가(Artisan), 조력가(Guardian), 이론가(Rational), 이상가(Idealist)로 새롭게 정의를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성격유형 이론도 4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어 설명을 하고 있다.

반면 김만권, 한종철, 이기학(2001)은 U&I 학습유형 검사는 4가지의 학습성격유형을 따르고 있다. 4가지의 학습성격유형의 조합하여 나오는 10가지의 학습성격유형으로 더 세분화 하여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개인의 행동특성, 선호하는 학습 및 업무방식 그리고 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 한다. 그 성격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행동형(Actual-Spontaneous Learner)

행동형의 행동적인 특성은 Keirsey와 Bates(1978)에서 디오니소스적(Dionysian) 기질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디오니소스적 기질은 MBTI 성격유형 검사의 이 유형에 속하고 4가지 기질로 이 유형에 속하고 4가지 기질로 나누었을 때는 SP 기질에 속한다. 이들 디오니소스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분방한 경험주의자로 자유로워야 하고 구속받거나 속박 받거나 제약을 받거나 의무를 지지 않으려 한다. 디오니소스적 기질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은 본질적으로 충동적이다. 이들은 또한 도구를 잘 사용한다. 또한 자부심이 강하며 친구들로부터 열정적이고 낙천적이며 기운 넘치고 쾌활하며 재미난 사람으로 평가를 듣는다. 이들은 좌절을 해도오래 가지 않는다. 이들의 삶이란 충동이 있어야 한다. 목적론적인 수사법으로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거나 강조하지 않고, 언어가 실무적이고 실질적이다.

디오니소스적 기질은 다른 기질들 보다 인내심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기질들은 목적 지향적이라서 이유 없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유형 중에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한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4가지 기질 중에서 가장 형제애와 동료애가 깊은 기질이기도 하다. 쓸 수 있는 자원들은 무엇이든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다. 유달리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기도 한다. 이들은 복잡한 동기 부여 같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는 무엇이건 그 자체가 중요하다. 생각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Keirsey & Bates, 정혜경 역, 2004). Golay(1982)는 행동형은 문화적인 것과 지적인 문제에 관심이 가장 적은 학습유형이다. 전통적인 교육체계 안에서는 억압받고 억제된다는 느낌을 갖고, 공식적인 지식 체계에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다. 논리나 계획에 따라 동기화 되지 않고 실제적인 것들에 의해서 동기화 된다. Golay(1982)는 보통 학습의 학생 중 거의 38%가 행동형으로 추정하였다.

행동형의 학습특성은 Keirsey의 분류에서의 디오니소스적 기질(SP기질)은 실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체험학습을 선호하여 논리적 계획적인 것에 관심을 끌

지 못하며 활동적인 동기가 유발된다. 변화를 즐기며 다양한 과제와 충동적인 작업에 잘 반응한다. 집단 토론에서도 조직화되고 준비된 토론보다는 리더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시청각 자료나 도구를 사용한 학습이 효과적이다 (하태심, 2002).

Golay(1982)에 의하면 행동형은 지속되는 과제나 학습을 싫어하고, 반복과 훈련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책상에 조용히 앉아있거나 혹은 종이와 연필로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행동형은 교실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경쟁, 시험 그리고 도전을 좋아한다. 학습 공간으로는 재미있고 흥미로우며, 도전을 요구하고 경쟁이며 교육적인 다양한 게임들이 갖추어진 게임 센터와 같은 곳이 효과적이다. 행동형 동기화의 핵심요소는 행동이다. 다양함과 흥미를 갖춘 발표식 수업을 선호하고, 과제로는 만들거나 조립하는 것을 좋아한다. 행동형은 강의식 수업방식을 매우 싫어한다. 순간의 충동을 자유롭게 배출해낼 수 있으며, 자유롭게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소리와 색깔과 움직임이 풍부한 자극적인 분위기에서 학습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따라서 하루 수업 중에 조용히 혼자 하는 학습활동과 여럿이 함께 하는 시간을 중간 중간에 배치해야 학습에 흥미를 느끼며 학습의 효과도 나타난다. 중등학교 학력검정고시 준비생들 중 행동형에 속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교수방식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허락이 되는 한 빨리 학교를 벗어나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김만권, 한종철, 이기학, 2002). 행동형 학생은 몸으로 직접 부딪쳐서 배워야 한다. 자기 손으로 직접 하는 체험을 필요로 한다. 활동과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며, 모험을 하기 좋아하고 실제로 해보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매일 반복되는 틀에 얽매이기를 매우 싫어한다. 어떤 틀에 묶어두려고 하면 반발심이 증가되고 결국 결석을 하거나 교실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대개 책상을 두드리거나 옆자리 아이들을 찌르거나 시끄럽게 발을 질질 끄는 등 산만하다. 중등학교 학력검정고시 준비생들 중에서 행동형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행동형 학생은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하는 공부에 매우 지루해 한다. 대개강의나 소크라테스식 문답식의 수업을 싫어하며 수련장이나 각 강의 끝에 있는 정리문제 풀이도 싫어한다. 또한 숙제하는 것도 매우 싫어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숙제는 학생과 교사간의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뿐만 경우가 많다. 행동형 학생은 음악·연극·미술·공예·기계학·건축 등이나 그 밖의 활동적인 과목들을 선호한다. 행동형의 기본욕구는 자유/자발성이다(김만권, 한종철, 이기학, 2002).

(2) 규범형(Actual-Routine Learner)

규범형의 행동적인 특성은 Keirsey와 Bates(1978)에서 에피메테우스적(Epimethean) 기질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에피메테우스적 기질은 의무를 중시하는 전통주의자들이다. MBTI 성격검사의 16가지 성격유형 중에서 ISFJ, ESFJ, ISTJ, ESTJ형들이 여기에 속하고 4가지 기질에서는 SJ기질이 여기에 속한다. ISFJ, ESFJ, ISTJ, ESTJ형의 4가지 성격유형은 서로 다르면서도 비슷한 점이 많다. 즉 SJ의 특징인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질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자신이 속한 사회를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디오니시적 기질(SJ 기질)들은 부모처럼 행동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어릴 때부터 나타난다. 디오니시적 기질(SJ 기질)은 어딘가에 결속되어 책임지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계급적 신념과 소망을 위해 부모애와 의무를 다하며, 언뜻 보기만 해도 모든 일에 다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항상 우울하고 미래를 불길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오리려 실수나 결점에 대비하는 현실적인 사람, 곳은 날을 대비해 무언가를 챙겨놓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전통을 중요시 하고, 보존 욕구가 너무나 강해서 행동이나 태도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직위와 권리를 중요시하고 떠맡는 책임의 양에는 한계가 없다. 또한 할 일이나 임무가 있으면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의무감까지 느낀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 특히 노인이나 젊은이들을 위한 일을 하는 공직에 관심이 많다. 정해진 시간에 정당하게 일하고 싶어 하고 매일매일 일하는 곳에 온전히 속해서 거기에 헌신하고자 노력한다. Golay(1982)는 보통 학습의 학생 중 거의 38%로 추정하였다.

또한 규범형의 학습특성은 Keirsey의 분류에서의 에피메테우스적 기질(SJ 기질)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선호하고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잘

구조화된 사실을 잘 기억하고 측정하여 지식을 얻는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나 강의식 수업이 효과적이다. 일관성과 명확한 절차가 있는 학습에 잘 적응하며, 창조적, 독창적 추론을 요구하는 과제에 어려움을 느낀다. 계획되지 않은 복잡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하태심, 2002). Golay(1982)에 의하면 규범형은 반복, 훈련 그리고 자료에 대한 단계적 제시를 통해서 사실과 절차들을 기억하고 구분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한다. 절차가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교실에서 학습을 잘한다. 일정이나 짜여진 일과가 바뀌면 규범형은 당황하고 변경된 상황들을 고치려고 한다. 즉, 명확한 기대와 특정한 절차가 주어졌던 상황에서 과제를 잘 수행한다. 규범형은 즉시성을 요구하거나 복잡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규범형은 무엇을 새로 배울 때는 그 새로운 기술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여주고, 조금씩 익혀가도록 요구하는 것을 좋아하며, 수련장 완성, 반복, 연습, 암송,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응용의 실례를 곁들인 강의를 좋아한다. 또한 계산, 낭독, 철자법 등과 같은 기계적인 기술을 연습하는 것을 즐기며, 과학의 사실적인 측면, 지리, 역사를 좋아하며, 경영학이나 회계학, 교직, 간호직 및 기타 업무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김만권, 한종철, 이기학, 2002).

규범형 아동은 권위적인 인물의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 이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몰라도 부모나 교사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부를 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 좋은 공부 습관, 숙제 제때 해내기, 지시대로 학과 공부하기 등을 중시한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학급에서 더 잘 적응하며 체계적인 것을 좋아한다. 즉, 이들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상하관계가 뚜렷한 학급에서 더 잘 적응하며, 명확하게 지시를 받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최선을 다한다. 이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규칙을 준수하는데 매우 뛰어나다.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질책이나 비난도 잘 수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노력한다. 규범형 학생은 강의식이나 교사의 지도아래 질문하고 대답하는 전통적인 교수 방식을 선호하며, 대체로 학교를 좋아하고 교사가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만 하다면 학교생활이 순조롭다. 규범형의 기본욕구는 질서/안전이다(김만권, 한종철, 이기학, 2002).

(3) 탐구형(Conceptual-Specific Learner)

탐구형의 행동적인 특성은 Keirsey와 Bates(1978)에서 프로메테우스적(Promethean) 기질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프로메테우스적 기질은 완벽을 추구하는 합리주의자들이다. 이들은 MBTI 성격심리의 16가지 성격유형에서 보면 INTP, ENTP, INTJ, ENTJ형이 속하고 4가지 기질에서 NT기질이 이에 속한다. NT형들은 드문 편이다. NT형을 매혹시키는 것은 자연을 다스리는 힘 즉, 실체를 이해하고, 통제하고, 예측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들은 총명함을 좋아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총명함이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이든 잘 해내는 것을 말한다. 유능해지고 싶어 한다는 말로도 프로메테우스적 기질은 탐구욕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들은 반드시 유능해져야만 한다. 향상된다는 것이 중요하지 행동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4가지 기질 중에서 가장 자기비판적인 기질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발전을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얼마나 향상했는지 스스로를 감시하고 가차 없이 비판한다. 성향이 강할수록 스스로에게 가혹하고 엄격하게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한다. 공부든 모험이든 자신이 선택한 분야를 정복해야 직성이 풀리며 대충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들은 또한 기존의 권위에 도전을 하며, 특히 이것이 프로메테우스적 기질의 특징이며, 그 때문에 튀어 보이고 어떤 때는 오만해 보일 수도 있다. 이들은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털어 놓을 때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정말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실패하게 되고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만다. 괄목한 성과를 올려도 내일이 되면 흔히 있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도 있다.

프로메테우스적 기질들은 논리적 오류나 전략적인 실수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들은 또한 대화에서 말이 별로 없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 편이라서 짧고 간결하며 논리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건 누구나 다 알 텐데”라고 생각하며 일일이 다 설명하면 듣는 사람이 지루해 한다고 생각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는 잘하지 않는다. 이면에 숨은 의미나 비언어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언어 선택을 정확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이 하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깨닫는다. 이들은 또한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
이므로 실제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는 수가 많다. 일관성이 있고 말이
되는 해답을 원한다. 끊임없이 배우고자하는 욕망이 있으며 지식을 추구한다. 프
로메테우스적 기질은 4가지 기질 중에서 가장 일에 과묵해서 사는 형들이다. 즉
일은 일이기도 하지만 놀이기도 하다.

행동지향적인 갈망이나 충동은 없으나 원리를 파악하는 일에 욕망을 느낀다.
무엇을 하든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높은 실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주의 깊게 듣는 편이며 골치 아프지 않는다면
정책이나 절차상의 변화도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들은 경쟁자의 아이디어를 배우
고 싶어 하며 언제나 열린 사고가 유지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탐구하는 자세를
갖추고 의지, 자제심,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고자 한다. 사람을 대할 때는 솔직하
고 직설적인 편이라서 차갑고 거리감 있고 속을 알기 힘든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솔직히 말해 달라면 애매모호한 말로
얼버무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견해를 말할 것이다. 미래가 중요하고 지나간
과거는 관심이 없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중요하다. 실수는 되풀
이되지 않기를 원한다. 일단 기술이나 이론을 완벽히 숙지한 후 도전과제로 옮겨
가는 성격이고, 주의 사람들의 동기나 사고방식을 추론할 때 자신의 경험을 머릿
속의 어떤 운영체계에 끼워 맞춰 생각하려 하여 때때로 직접경험을 놓치기도 한
다.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매우 둔감해서 대인관계의 미묘한 점을 감지 못하는
편이다. Golay(1982)에서 보통 학습의 학생 중 12%로 추정하였다.

또한 탐구형의 학습특성은 Keirsey의 분류에서의 프로메테우스적 기질(NT 기
질)은 지적인 호기심이 많으며 인지적 세계를 구조화하기 위해 규율을 수립하고
원칙을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과 원리를
사용한다. 장시간 하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가졌으며, 자신의 느슨한
주의집중이나 수동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덜 사회적이므로 혼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며, 논리적이고 비 행동적인 학습을 선호한다. 구체적인 정보를 학습 하거
나 일상적인 과제에 따르는 반복과 훈련에는 관심이 없다. 실험을 통해 비평할
수 있고, 사고 속에 숨겨진 가설을 조사하는 학습을 선호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와 낡은 아이디어를 비교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중요성과 낡은 아이디어의 한

계를 설명한 수 있는 논리적인 탐구학습을 선호한다(하태심, 2002).

Golay(1982)에 의하면 탐구형은 현상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싶어 한다. 지혜를 축적하고 지식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지칠 줄 모르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문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주제가 있는 깊이 있는 토론 방식의 수업을 좋아하며, 과제가 논리적인 요소들을 종합하는 것이나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면 선호한다. 그리고 과제나 결과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좋아한다. 탐구형은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보여지는 것의 이면에 있는 원리를 더 관심이 많다. 따라서 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영감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업방식이 효과적이다.

탐구형의 학생들은 지식의 습득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 그들은 알아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알지 않으면 안 되며,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언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이 어떻게 떠올랐는가, 그것이 다른 생각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모순점은 무엇인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왜 사물은 그러한 성질을 지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한다. 대개 이들은 학교 성적이 우수하며, 기초 과학이나 고급 수학같이 어려운 과목도 마다하지 않는다. 독립적이고 자기 나름의 관심사만을 추구하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혼자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의 영감을 추구하고 이해하고자 하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새로운 사실들에 전념하기를 좋아한다. 때때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들은 관심이 없는 과목들을 소홀히 하여 낙제 점수를 받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배워야 할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시할 때 편안해 하며,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김만권, 한종철, 이기학, 2002).

탐구형 학생들은 능력에 대한 갈망이 있다. 이들은 알아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알지 않으면 안 되며 알아야하는 것들도 많다.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언하고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한다. 탐구형 학생은 규칙과 원리들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규명해내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전개시켜 나가기를 즐긴다. 늘 지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남자 아동의 경우

어릴 적부터 과학기술에 관심을 둔다. 탐구형 학생은 독자적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의 영감을 추구하고 이해하고자하는 자기의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새로운 사실들을 추적하기를 좋아한다. 때때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관심이 없는 과목들을 소홀히 하여 낙제 점수를 받기도 한다. 탐구형 학생은 학급에서 외톨이일 가능성이 높는데, 특히 내향적인 탐구형학생일 경우 더욱 그렇다. 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감정을 표출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알아채지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종종본의 아니게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기본욕구는 탐구/성장이다(김만권, 한종철, 이기학, 2002).

(4) 이상형(Conceptual-Global Learner)

이상형의 행동특성은 Keirse와 Bates(1978)에서 아폴로적(Apollonian) 기질이 라고 정의를 하였다. 아폴로적 기질은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이상주의자들이다. MBTI 성격심리 검사의 16가지 성격유형에서는 INFJ, ENFJ, INFP, ENFP형이 여기에 속하고 4가지 기질에서 NF기질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다.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데 이는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목적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편이다. 이는 미지의 목표, 자기 생각대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자체를 부정한다. 즉, 자아 찾기를 끝없이 맴돌기만 한다. 목표를 찾는 것이 목표인데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 이들은 자기실현을 갈망하며 실체가 되고자 한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유일무이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자아 찾기는 흔히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갈망을 채우려면 주목받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하나의 드라마일 수 밖에 없으며, 만남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 모든 사건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높은 의미를 부여한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말이나 행동에서 남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 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몰라주는 사람들 때문에 쉽

게 상처를 입는다. 대인관계에서 사람에게 많은 노력과 감정을 쏟고 그에 대해 큰 기대를 하는 편인데, 기대에 못 미쳐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대인관계에 열정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이다. 한 가지 일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일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사상이나 태도를 가르치는 직업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고 싶어 한다. 직업은 큰 의미가 없고 필요하고 자신에게나 타인들에게도 중요한 일이어야 하고, 그 때문에 일에 쏟는 시간이나 에너지의 양을 조절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일단 시작하면 결과물을 내기 위해 어떤 한계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 창조적인 방면에서 열성을 다해 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아이디어에서 저 아이디어로 옮겨 다니기도 한다. 사람들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타인에게서 최선을 이끌어 내기를 좋아한다 (Keirse와 Bates, 정혜경 역, 2004).

이상형은 미래지향적이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탐구형과는 다르게 이상형은 원리의 가능성이 아닌 사람 속에서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이상형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들의 유일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학생 중 12%로 추정 하였다(Golay, 1982).

이상형의 학생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갈망한다. 이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대개 이들은 감정이입을 잘하며, 표현이 풍부하고 행동이 극단적이거나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은 인격적인 교류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자 하며, 적개심이나 다툼에 대해서는 거의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며 이러한 종류의 긴장에 노출되면 때때로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들은 인정과 보살핌과 개인적인 관심을 받고, 상호간에 주고받음에서 이루어지고, 그의 감정적인 자세를 인정받을 때 잘 성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교사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며, 인정해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이들은 종종 고통스러운 정도의 부끄러움을 타므로 같은 학급의 친구들과 허물없이 지내도록 용기를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 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들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급에서 훌륭하게 행동하며,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정열적으로 참

여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김만권, 한종철, 이기학, 2002).

또한 이상형의 학습특성은 Keirse의 분류에서의 아폴로적 기질 (NF 기질)은 자신을 이해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다. 명확한 원칙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느낌과 직감으로 빠르게 통찰한다. 학업성취가 높으며, 창의적이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즐긴다.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에 의한 학습이 효과적이다. 열정적이고 드라마틱한 발표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있는 집단토론과 같은 학습과 연극이나 역할 연기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하태심, 2001).

Golay(1982)에 의하면 이상형은 소그룹 토론을 선호한다. 의사소통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그룹보다는 상호교류가 활발할 수 있는 소그룹을 좋아한다. 교과 내용이나 과제가 삶에 의미를 주고 자신만의 독특한 존재가 되게 하는 기술이나 지식과 관련된 것들을 선호한다.

이상형은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보다는 토론이나 역할 놀이, 연극공연 및 소설 등을 통해서 보다 잘 학습하는데, 일대일의 대화나 소수가 모여서 하는 학습방식을 선호하며, 과학이나 경영학 같은 비교적 추상적인 과목보다는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과목을 선호한다. 이들이 잘 따르는 교사는 잘 받아들여주고 늘 북돋아주거나 말로써 남의 기분을 알아주는 교사,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교사, 소집단을 만들어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교사, 학급 구성원들의 사상이나 의견에 성실하게 반응을 보이며 받아들이는 교사, 학습을 통솔하는 수단으로 비웃음이나 빈정거림을 사용하지 않는 교사 등이다(김만권, 한종철, 이기학, 2002).

이상형 학생은 자아실현을 갈망한다. 이들은 ‘훌륭한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 이들은 인격적인 관계형성을 원한다. 적개심이나 다툼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여 이러한 종류의 긴장에 노출되면 때때로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들은 인정과 보살핌과 개인적인 관심이 상호간에 주고받음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감정적인 자세를 인정받을 때 잘 성장한다.

따라서 이상형 학생에게 있어서 교사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며, 인정해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상형 학생은 마주보고 대

화하는 데서 더 잘 배우며 민주적인 학급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 자기 자신의 감정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도 민감하고 모든 것을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이들은 사회적인 상황을 개선하여 보다 즐겁고 유익한 것으로 만들고자한다. 내향적인 이상형 학생은 종종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끄러움을 탐으로 같은 급의 친구들과 허물없이 지내도록 용기를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 이들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이 필요하다. 이상형 학생은 과학이나 경영학 같은 비교적 추상적인 과목보다는 인간에 초점을 맞춘 과목을 선호한다. 이들의 기본욕구는 조화/자아실현이다(김만권, 한종철, 이기학, 2002).

(5) 조합형 행동특성

위의 4가지 학습성격유형 즉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의 기본성격유형에서 이를 다시 2개 또는 3개의 유형의 조합을 이루어 행동-규범형, 행동-탐구형, 행동-이상형, 규범-탐구형, 규범-이상형, 탐구-이상형, 행동-규범-탐구형, 행동-규범-이상형, 행동-탐구-이상형, 규범-탐구-이상형으로 나타난 총 10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동-규범형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모험적인 행동 성향과, 예절이 바르고 규칙적이며 관습적인 규범 성향이 결합된 유형이다. 규범을 잘 따르고 규칙적이면서도 활동적인 면이 강하고 책임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완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어떤 난관이 있거나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기본욕구는 정의구현이다.

행동-탐구형은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활동적이며 구속 받기를 싫어하는 행동형적인 성향과 깊이 분석하고 따지고 드는 논리성과 독창적이고 확산적으로 사고하는 탐구형적인 성향이 결합된 유형이다. 행동-탐구형은 여러 성격 유형 중에서도 고집이 가장 세고 자기주장이 너무 강해 독선적이라는 평을 자주 듣는다. 차라리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누가 강요하거나 시킨다고 해서 자기의 주장이나 생

각을 포기하는 법이 없다. 이들의 기본욕구는 진리탐구이다.

행동-이상형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모험적인 행동 성향과, 인간적이고 조화롭고 협력적이며 높은 이상을 가진 이상 성향이 결합되어 있는 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활발하고 활동적이며, 명랑하고 쾌활한 편이다. 이들의 기본욕구는 즐거움이다.

규범-탐구형은 공손하고 예의 바르며 관습이나 규범을 잘 준수하는 규범적인 성향과, 지적이고 생각의 깊이가 있으며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탐구적인 성향이 결합되어 있는 유형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원리 원칙적이고 관습이나 규범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완벽 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의 기본욕구는 냉철한 양심이다.

규범-이상형은 조용하고 착하며 마음이 여리고 따뜻한 이상 성향과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며 윗사람들에게 순종적인 규범 형이 결합된 유형이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인정이 많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들의 기본욕구는 봉사와 헌신이다.

탐구-이상형은 지적 호기심이 넘쳐 끊임없이 궁금증과 의문을 갖는 탐구적인 성향과 상상력과 감성이 풍부하며 감수성 또한 예민하고 섬세한 이상형의 결합형이다. 그리고 확산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력과 풍부한 감성과 예민한 감수성이 결합된 유형이기 때문에 개성 또한 강한 편이다. 이들의 기본욕구는 개성존중이다.

행동-규범-탐구형은 도전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활동적이면서도 어딘가에 구속되기를 싫어하는 행동적인 성향과 공손하고 예의 바르며 관습이나 규범을 잘 준수하는 규범적인 성향 그리고 지적 호기심으로 끊임없이 궁금증과 의문을 갖는 탐구적인 성향이 결합된 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활동적이면서도 원칙과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행정 관련 업무나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일을 좋아한다. 이들의 기본욕구는 유능성이다.

행동-규범-이상형은 도전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활동적이고 구속되기를 싫어하는 행동적인 성향과 공손하고 예의 바르며 관습이나 규범을 잘 준수하는 규범적인 성향 그리고 상상력과 감성이 풍부하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섬세한 이

상적인 성향의 결합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활기차면서도, 윗사람들의 말에 순종적이고 예의가 바르며 규칙이나 관습을 잘 지키는 한편 따뜻한 마음이 넘치고 인정이 많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다. 이들의 기본욕구는 명예존중이다.

행동-탐구-이상형은 도전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활동적이고 구속되기를 싫어하는 성향, 지적 호기심으로 끊임없이 궁금증과 의문을 갖는 탐구적인 성향 그리고 상상력과 감성이 풍부하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섬세한 이상적인 성향의 결합형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은 관습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기발하고 특이한 것을 생각해 내며 창의력이 풍부해서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독창적인 혁신가다. 이들의 기본욕구는 진리탐구와 혁신이다.

규범-탐구-이상형은 조용하고 예절 바르며 규칙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규범 성향과 깊이 분석하며 따지고 드는 논리성과 독창적이고 확산적으로 사고하는 탐구 성향 그리고 인간적이고 조화를 중시하며 협력적이고 높은 이상을 가진 이상 성향이 결합된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자신이 맡은 일은 꼼꼼히 처리하는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함께, 겉으로는 부드럽고 약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매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기본욕구는 도도함과 우아함이다(김만권, 한종철, 이기학, 2002).

5. 선행연구의 고찰

1) 성격의 유사성과의 관계

유사성 매력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유사하다고 지각하는 타인에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태도 유사성이 매력을 증가시킨다는 이론으로 태도 유사성이 매력을 증가시키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다음 이론들이 있다.

첫째, 균형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자신과 유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을 좋아함으로써 일관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함을 설명한다. 둘째, 강화이론에서는 자신의 의견, 신념 및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부터 지지를 얻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 셋째, 기대이론에서는 자신과 유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을 좋아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매력을 느낀다고 설명한다(Jones, Bell, & Aronson, 1972; Tedeschi, 1974; 하선애, 2007 재인용).

이와 달리 특정한 조건에서 유사성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나 심지어 비유사성이 매력을 결정한다는 이론이 사회정체성 이론으로 자기범주화 이론의 배경에서 제안되었다(Hogg & Hains, 1996). 이에 따르면 집단 내 범주화된 타인의 경우 자신과 유사성이 높으면 그 타인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지만, 외집단으로 범주화된 유사성의 정보는 매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부유사성과 결혼 만족도간의 관계를 다룬 여러 연구들에서는 어느 정도 부부의 성격유사성이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시사 하였다(하선애, 2007 재인용). Schonrhk Wooldredge(1989)는 배우자들에게 외모, 성격, 사회적 배경, 학력, 종교 등에서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Myers(1962)는 성격유사성이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용의성을 증가시킴으로서, 대인관계를 높여준다고 하였다(조선영, 1994 재인용). 그리고 Myers와 Myers(1991) 부부는 서로 성격유형이 다를 때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부부간에 성격이 유사할수록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 결혼생활이 더 행복했으며 가정불화가 적고 그들의 자녀의 정서, 행동 면에서 더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2) 부모자녀 성격의 유사성과 행동

부모 자녀의 성격유사, 일치관계에서는 부모 자녀간의 성격유사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성격유사성이 가족까지 확대되어 부모 자녀간의 성격 유사성이 높을수록 갈등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Bartko와 Marusic(1997)는 부모와 자녀의 성격이 전반적 유의성은 낮으며 5요인 성격요인중 개방성과 성실성만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Tuijl(2005)등도 부모와 자녀의 5요인 성격 유사성과 문제행동이 부적의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고세희(2002)는 MBTI 성격유형을 활용한 연구에서 성격 유사/비유사 집단에 따른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MB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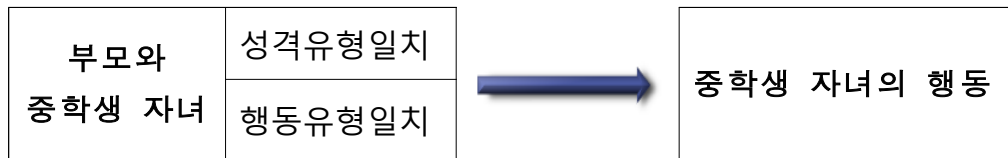
기질의 일치/불일치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하선애(2007)는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성격의 일치와 문제행동간의 연구에서 성격의 유사성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역기능적 의사소통 및 부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상관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Tuijl(2005) 등의 연구결과에 상반되게 청소년자녀와 부모의 전반적인 성격유사성이 문제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안정성 차이, 성실성의 차이와 청소년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격보다는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이 영향을 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모형

본 연구는 부모 자녀의 성격유형, 행동유형을 각각 검사하고 성격유형의 하위요소인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의 각각의 성격유형과 행동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부모 자녀의 성격유형, 행동유형 일치여부를 분석하고 자녀의 행동유형의 하위요소인 반항, 완벽주의, 고군분투, 잡념, 만족, 외곬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성격유형과 행동유형의 일치여부에 따른 행동유형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관계를 제시하면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 설계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U&I검사를 하였다. 부모 246명과 그의 중학생 자녀 246명 총 492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했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부모 6명, 중학생 자녀 6명, 총 12명을 제외하고 총 48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표 Ⅲ-1>과 같다.

<표 III-1> 연구대상자의 분포

	남	녀	전체
부모 N(%)	14(5.8)	226(94.2)	240(100)
학생 N(%)	126(52.6)	114(47.5)	240(100)
전체 N(%)	140(29.2)	340(70.8)	480(100)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David Keirse와 학습행동에 관한 Diane Heacox의 연구를 바탕으로 김만권, 한종철, 이기학(2001)이 개발한 U&I학습유형검사를 사용한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부모의 성격과 행동에 관한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성격유형 분포

성격유형을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의 대표행동으로 구분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유형을 대표 성격유형으로 설정하였다.

1) 부모

부모의 성별에 따른 부모 성격 유형분포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IV-1>와 같이 유의확률 .039($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부의 비율이 240명중 14명인 5.8%로 적으나 전체 분포를 보면 규범형 > 이상형 > 행동형 > 탐구형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 부모 성격유형 분포

구분	성격유형				전체	χ^2 (df)	p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			
남	N	7	3	1	3	14	
	(%)	(50.0)	(21.4)	(7.1)	(21.4)		
성 녀	N	44	116	11	55	226	8.342
	(%)	(19.5)	(51.3)	(4.9)	(24.3)		
전 체	N	51	119	12	58	240	
	(%)	(21.2)	(49.6)	(5.0)	(24.2)		

2) 중학생 자녀

중학생자녀 성별에 따른 성격유형분포의 교차분석 결과는 유의확률 .000($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행동형 > 이상형 > 규범형 > 탐구형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동형은 남학생이 이상형은 여학생이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녀에 따른 성격유형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학생 자녀의 성격유형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과 같다.

<표 IV-2> 중학생 자녀의 성격유형 분포

구분	성격유형				전체	χ^2 (df)	p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			
남	N	55	27	16	28	21.084 (3)	.000
	%	(43.7)	(21.4)	(12.7)	(22.2)		
성 별 여	N	42	18	2	52		
	%	(36.8)	(15.8)	(1.8)	(45.6)		
전 체	N	97	45	18	80		
	%	(40.4)	(18.8)	(7.5)	(33.3)		

<표 IV-1>과 <표 IV-2>를 보면, 성격유형 분포는 부모는 규범형이 49.6%로 중학생 자녀 18.8%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은 행동형이 40.4%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부모는 21.2%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김만권(2010)이 발표한 성인 순서 > 규범형 > 이상형 > 행동형 > 탐구형 순으로 일치하나 중학생 순서 > 행동형 > 이상형 > 규범형 > 탐구형 으로 김만권의 발표한 이상형 > 행동형 > 규범형 > 탐구형 순과 다르게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 중학생과 성인 간에는 성격유형분포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 중학생은 행동형이 43.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나 여자 중학생은 이상형 45.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남·여에 따른 다른 지도방식이 적절 하다고 생각된다.

2. 행동유형분포

행동유형은 고군분투형, 만족형, 반항형, 완벽형, 외곺형, 잡념형중 가장 높은 점수를 대표행동유형으로 설정하였다.

1) 학부모

부모의 성별에 따른 행동유형분포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17($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전체적으로는 만족형 > 외곶형 > 완벽주의형 > 반항형 > 잡념형 > 고군분투형 순이며 학부모에게서는 만족형이 59.2%로 높은 분포이다. 그러나 부의 분포가 14명으로 작아 남, 녀의 차를 단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의 행동유형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3>과 같다.

<표 IV-3> 부모 행동유형 분포

구분	행동유형						전체	χ^2 (df)	p	
	반항형	완벽주의형	고군분투형	잡념형	만족형	외곶형				
남	N	1	0	0	3	6	4	14	13.756 (5)	.017
	%	(7.1)	(0.0)	(0.0)	(21.4)	(42.9)	(28.6)	(100)		
성 별 여	N	18	26	10	9	136	27	226		
	%	(8.0)	(11.5)	(4.4)	(4.0)	(60.2)	(11.9)	(100)		
전 체	N	19	26	10	12	142	31	240		
	%	(7.9)	(10.8)	(4.2)	(5.0)	(59.2)	(12.9)	(100)		

2) 중학생 자녀

중학생 자녀의 성별에 따른 행동유형분포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128($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그러나 반항형은 남학생은 11.1%, 여학생은 3.5%로 차이를 보인다. 잡념형은 여학생은 17.5%, 남학생은 8.7%로 성별에 따른 학습행동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학생 자녀의 행동유형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4>과 같다.

<표 IV-4> 중학생 자녀 대표 행동유형

구분	행동유형						전체	χ^2 (df)	p	
	반항형	완벽주의형	고군분투형	잡념형	만족형	외곶형				
남	N	14	15	26	11	40	20	126	8.569 (5)	.128
	%	(11.1)	(11.9)	(20.6)	(8.7)	(31.7)	(15.9)	(100)		
성 별	N	4	14	25	20	36	15	114		
	%	(3.5)	(12.3)	(21.9)	(17.5)	(31.6)	(13.2)	(100)		
전 체	N	18	29	51	31	76	35	240		
	%	(7.5)	(12.1)	(21.2)	(12.9)	(31.7)	(14.6)	(100)		

연구 참여자의 행동유형 분포는 만족형은 학부모가 59.2%로 중학생 자녀 31.7%보다 높은 비율이다. 학부모인 성인은 자신 스스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중학생자녀는 다음 순위가 고군분투형이 21.2%를 나타내는 반면 학부모는 4.2%로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군분투형의 특성인 학습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구체적인 학습방법의 제시가 필요하고 부모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부모상담, 교육을 통하여 자녀에게 자율성을 주고 목표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성격유형에 따른 행동유형분포

1) 부모의 성격유형에 따른 행동유형

부모의 성격유형별 행동유형분포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p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행동형은 만족형 > 외곶형 > 반항형 > 잡념형 > 고군분투형 > 완벽주의형 순으로, 규범형은 만족형 > 완벽주의형 > 외곶형 > 반항형 > 잡념형 > 고군분투형 순으로, 탐구형은 외곶형 > 만족형 > 완벽주의형 = 잡념형 > 고군분투형 = 반항형 순으로, 이상형은 만족형 > 완벽주의형 > 반항형 > 고군분투형 = 외곶형 > 잡념형 순으로, 탐구형은 외곶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유형에서는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부모의 성격유형과 행동유형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5>과 같다.

<표 IV-5> 부모의 성격유형과 행동유형

구분	행동유형						전체	x ² (df)	p
	반항형	완벽주의형	고군분투형	잡념형	만족형	외곬형			
성격유형	행동형	N 8 % (15.7)	N 2 % (3.9)	N 4 % (7.8)	N 5 % (9.8)	N 23 % (45.1)	N 9 % (17.6)	43.856 (15)	.00 0
	규범형	N 5 % (4.2)	N 16 % (13.4)	N 1 % (0.8)	N 3 % (2.5)	N 83 % (69.7)	N 11 % (9.2)		
	탐구형	N 0 % (0.0)	N 1 % (8.3)	N 0 % (0.0)	N 1 % (8.3)	N 4 % (33.3)	N 6 % (50.0)		
	이상형	N 6 % (10.3)	N 7 % (12.1)	N 5 % (8.6)	N 3 % (5.2)	N 32 % (55.2)	N 5 % (8.6)		
	전체	N 19 % (7.9)	N 26 % (10.8)	N 10 % (4.2)	N 12 % (5.0)	N 142 % (59.2)	N 31 % (12.9)		

2) 중학생자녀의 성격유형에 따른 행동유형

중학생자녀의 성격유형에 따른 행동유형분포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0(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행동형은 만족형>고군분투형> 외곬형> 반항형> 완벽주의형> 잡념형 순으로 규범형은 만족형> 고군분투형> 완벽주의형> 잡념형> 반항형> 외곬형 순으로 탐구형은 외곬형> 만족형= 완벽주의형> 잡념형= 고군분투형> 반항형 순으로 이상형은 잡념형> 고군분투형> 만족형> 외곬형> 완벽주의형> 반항형 순으로 나타났다. 행동형과 규범형은 만족이 가장 높으나 탐구형은 외곬이 이상형은 잡념이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났다.

중학생자녀의 성격유형과 행동유형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6>과 같다.

<표 IV-6> 중학생 자녀의 성격유형과 행동유형

구분	행동유형						전체	χ^2 (df)	p		
	반항형	완벽주의형	고군분투형	잡념형	만족형	외곬형					
성격유형	행동형	N (%)	12 (12.4)	10 (10.3)	22 (22.7)	8 (8.2)	32 (33.0)	13 (13.4)	97 (100)	46.775 (15)	.000
	규범형	N (%)	1 (2.2)	7 (15.6)	10 (22.2)	2 (4.4)	25 (55.6)	0 (0.0)	45 (100)		
	탐구형	N (%)	1 (5.6)	3 (16.7)	2 (11.1)	2 (11.1)	3 (16.7)	7 (38.9)	18 (100)		
	이상형	N (%)	4 (5.0)	9 (11.2)	17 (21.2)	19 (23.8)	16 (20.0)	15 (18.8)	80 (100)		
전체	N (%)	18 (7.5)	29 (12.1)	51 (21.2)	31 (12.9)	76 (31.7)	35 (14.6)	240 (100.0)			

성격유형에 따른 행동유형분포는 부모와 자녀 동일하게 규범형에서 만족이 부모는 69.7% 자녀는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규범형에서 만족이 많이 나오는 것은 성인은 전통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학생 자녀는 학교 상황에서 규범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성격적인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순위는 부모는 이상형에서 만족이 55.2%인 반면 자녀는 23.8%로 차이를 보인다. 중학생 자녀의 이상형은 잡념형이 23.8%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 이상형의 성격특성인 정서적인 안정과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잡념형의 성격특성인 타인에 대한 배려 걱정으로 가족 안에서의 정서적인 안정과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탐구형은 학부모 50.0%, 중학생 39.8%로 모두 외곬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나이를 불문하고 탐구형의 성격특성인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몰두하는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른 방식의 학습과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이고 특히 성장기인 중학생자녀에 대한 지도방식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4. 부모-자녀의 성격유형 및 행동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의 행동유형

1) 부모-자녀의 성격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의 행동유형

부모-자녀의 성격일치여부에 따른 자녀행동유형분포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36($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성격불일치는 만족형 > 고군분투형 > 잡념형=외곶형 > 완벽주의형 > 반항형 순이며 성격일치는 만족형 > 고군분투형 > 완벽주의형 > 반항형 > 외곶형 > 잡념형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는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만족이 높으나 분포는 불일치에서는 29.9% 일치에서는 36.4%로 차이가 있다. 부모-자녀의 성격유형 여부일치에 따른 자녀의 행동유형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7>과 같다.

<표 IV-7> 부모-자녀의 성격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의 행동유형

구분	자녀의 행동유형						전체	χ^2 (df)	p		
	반항형	완벽주의형	고군분투형	잡념형	만족형	외곶형					
일치여부	불일치	N (%)	9 (5.2)	19 (10.9)	38 (21.8)	28 (16.1)	52 (29.9)	28 (16.1)	171 (100)	11.94 4 (5)	.036
	일치	N (%)	9 (13.6)	10 (15.2)	13 (19.7)	3 (4.5)	24 (36.4)	7 (10.6)	66 (100)		
	전체	N (%)	18 (7.5)	29 (12.1)	51 (21.2)	31 (12.9)	76 (31.7)	35 (14.6)	240 (100)		

2) 부모-자녀의 행동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의 행동유형

부모-자녀의 행동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의 행동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p <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행동유형불일치는 고군분투형 > 외곶형 > 만족형 > 잡념형 > 완벽주의형 > 반항형 순이며 행동유형일치는 만족형 > 반항형=외곶형 > 고군분투형=완벽주의형=잡념형 순으로 나타났다. 행동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만족형의 분포가 일치 78.9% 불일치에서는 16.9%로 많은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자녀의 행동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의 행동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8>과 같다.

<표 IV-8> 부모-자녀의 행동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의 행동유형

구분	자녀의 행동유형						전체	χ^2 (df)	p		
	반항형	완벽 주의형	고군 분투형	잡념형	만족형	외곶형					
일 치 여 부	불 일 치	N (%)	15 (8.2)	27 (14.8)	49 (26.8)	29 (15.8)	31 (16.9)	32 (17.5)	183 (100)	78.466 (5)	.000
	일 치	N (%)	3 (5.3)	2 (3.5)	2 (3.5)	2 (3.5)	45 (78.9)	3 (5.3)	57 (100)		
	전 체	N (%)	18 (7.5)	29 (12.1)	51 (21.2)	31 (12.9)	76 (31.7)	35 (14.6)	240 (100)		

부모-자녀의 성격 및 행동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의 행동유형은 성격유형 일치여부 중학생 자녀의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나 불일치에서는 만족이 29.9% 일치에서는 36.4%로 차이가 있었으나 행동유형의 일치여부에서는 만족이 일치에서 78.9% 불일치가 16.9%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행동유형일치는 모든 행동유형에서 만족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행동유형 불일치에서는 고군분투 26.8% 외곶 17.5%로 만족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성격유형의 일치여부 보다 행동유형의 일치가 중학생 자녀의 행동유형에서 만족이 높아 정서적인 안정으로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적과 무관하게 현재의 생활에 만족함을 의미하기도 하다. 그러나 행동유형의 일치가 자녀의 즐거운 생활에 영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부모-자녀의 성격 및 행동 일치여부에 따른 자녀행동을 U&I검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본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자녀의 성격유형분포는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 부모성격유형 분포는 학부모는 전체적으로 규범형이 49.6%로 많으며 중학생자녀는 남학생은 행동형이 43.7%, 여학생은 이상형이 45.6%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중학생자녀는 전체적으로는 행동형이 40.4%로 많은 분포를 보여 학부모와 중학생자녀는 성격유형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에 따른 성격이 변화를 시사여 김혜경(2004)의 성격은 선천적인 것으로 믿는 쪽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다른 결과를 예상하게 한다.

부모의 성격유형이 규범형이 많고 자녀의 행동유형은 행동형이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규범형의 특성인 과제 중심적, 반복, 일관성, 절차중심, 강의식 수업방식을 좋아하고 책임을 추구하는 기본욕구와는 다르게 행동형의 특성인 반복을 싫어하고 다양한 흥미로 일관성이 없으며 강의식 수업방식을 싫어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기본욕구이다. 특성과 기본욕구의 차이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째, 부모와 자녀의 행동유형 분포는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 학부모의 행동유형 남녀분포는 전체적으로는 만족형이 59.2%로 가장 높으며 외곶형, 완벽주의형, 반항형, 고군분투형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의 빈도가 낮아 남녀부군은 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중학생 자녀의 행동유형 분포는 만족형이 31.7%로 가장 높으며 외곶형, 완벽주의형, 반항형, 고군분투형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형의 분포가 부모와 자녀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만족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자녀는 다음순위가 고군분투형은 21.2%를 나타내는 반면 학부모는 4.2%로 가장 낮은 분포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

군분투형의 특성인 똑똑한 학생이지만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방법에 문제가 있으나 이를 고치기 위한 도움이나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부모와의 학습 경험에서 오는 차이로 판단된다.

셋째, 부모 자녀의 성격유형에 따른 행동유형의 분포는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 부모와 자녀 동일하게 규범형에서 만족이 부모는 69.7% 자녀는 55.6%로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순위는 부모는 이상형에서 만족이 55.2%인 반면 자녀는 이상형은 중학생자녀가 잡념이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상형에서는 부모와 중학생 자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탐구형은 부모는 50.0% 자녀는 38.9% 모두 외곶형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 자녀 모두 규범적인 성격이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규범형의 특성인 전통의 중시하며 절차가 일관성이 있는 강의식 수업에서 학습을 잘하는 현 학교의 교육체제에 잘 어울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형은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는 이상형에서 잡념이 많은 것은 이상형의 특성인데 아직도 전통적인 수업방식보다는 일대일 또는 소수가 모여서 하는 학습방식을 선호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반영함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 자녀 모두 탐구형에서 외곶형이 높은 분포는 성격에 따른 행동유형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시사한다. 탐구형의 특성인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집중하고 선택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유형이라 외곶형의 특성과 유사하여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부모와 자녀의 성격유형 일치 여부에 따라 자녀의 행동유형의 분포는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만족형이 31.7%로 가장 높다. 그중 불일치는 29.9% 일치는 36.4%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어서 고군분투형이 전체에서 21.2%중 불일치에서 21.8% 일치에서 19.7%, 외곶형은 전체에서 14.6%중 불일치에서 16.1% 일치에서 10.6%, 잡념형은 전체에서 12.1%중 일치중 15.2% 불일치에서 4.5%를 보여 모든 행동유형에서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어서 완벽주의형은 전체에서 12.1%중 일치에서 15.2% 불일치에서 10.9% 반항형은 전체에서 4.5%중 일치에서 13.6% 불일치에서 5.2%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이 일치일 때 만족이 높은 결과를 나타나는 것은 성격의 일치가 학교 생활의 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Tuijl 등(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연구한 고세희(2002)의 연구결과인 성격의 유사성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하선애(2007)의 부모와 자녀의 성격의 일치와 불일치와 문제 행동 간의 연구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와 상반되게 관련성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차이가 역기능적 의사소통 문제행동간의 연구와의 관련성과 본 연구에서의 행동유형과의 차이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성격적인 부분을 다루는 성격유형과 심리적인 부분이 포함된 행동유형 간에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부모와 자녀의 행동유형일치 여부에 따라 자녀의 행동유형의 분포는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 만족형은 일치에서 높게 나오는 반면 다른 모든 자녀행동유형분포에서 불일치의 분포가 높게 나오고 있다. 전체에서는 만족형이 31.7%로 가장 많은 분포이며 그중 일치에서 78.9% 불일치에서 16.9%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고군분투형은 전체 21.2%중 불일치에서 26.8% 일치에서 3.5%, 외곶형은 전체 14.6%중 불일치에서 17.5% 일치에서 5.3%, 잡념형은 전체 12.9%중 불일치에서 15.8% 일치에서 3.5%, 완벽주의형은 전체 12.1%중 불일치에서 14.8%, 일치에서 3.5%, 반항형은 전체 7.5%중 불일치에서 8.2% 일치에서 5.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리적인 상태를 포함하는 행동유형의 일치는 만족은 일치에서 78.9%와 불일치에서 16.9%의 성격유형의 일치여부보다 많은 분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행동유형은 만족을 제외한 모든 행동유형이 불일치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행동유형이 일치여부가 자녀의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습행동유형과 관련된 연구가 미비 하나 학교생활이나 성적에 만족해하며 학교생활도 잘하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족형학생 중 학업성적과 무관하게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과는 자녀 자신은 만족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유형의 일치가 자녀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격의 일치여부에서는 만족이 일치는 36.4% 불일치는 29.9%로 행동유형의 일치여부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하선애(2007)의 연구결과인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성, 성실성의 차이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성격의 일치/불일치의 영향보다 보다 크다고 시사한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

이상의 결과로 부모-자녀의 성격유형의 분포의 차이는 성인이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하여 갈등의 원인이라 생각할 수 있다. 행동유형 분포의 차이는 성인에 비하여 중학생 자녀의 학습방법의 경험 또는 학습방법의 도움을 받은 경험의 차에서 오는 것임을 시사한다. 부모-자녀 모두 규범형에서 만족형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 규범과 학교의 규칙에 잘 적응하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성격유형의 일치여부에 따른 중학생 자녀의 행동유형은 만족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행동유형의 일치에서 중학생 자녀의 만족형이 뚜렷하게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행동의 일치가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생활의 만족에 기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의 대상을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인 한계로 전국적인 표집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다. 부모 중 모의 비율이 94.2%의 높은 성별 분포의 편중되어 있어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어 동일한 분포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중학교에 한정을 하였으나 초·중·고·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성격유형과 행동유형의 변화가 생기는 요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성격유형 대표유형 4가지만을 가장 높은 점수로 사용하여 다루고 있어 조합유형인 10가지 유형의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행동유형 또한 한 개인에게서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대표행동으로 하여 세밀한 연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연구대상자를 표집하여 세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의 성격유형간의 연구는 일부 있으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자

녀의 행동유형 간의 연구는 미진하여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강희영(2002).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도 및 교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세희(2002). 부모-자녀 성격의 유사성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2005). **아동 심리평가와 검사**, 서울: 학지사
- 김경택외(1992). **MBTI 관계논문 요약집**,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만권(2010). **U&I 학습유형검사 및 진로탐색검사의 User's Guide**. 서울: 연우심리연구소
- 김만권(2004). **성격을 알면 성적이 오른다**. 서울: 이지북
- 김만권, 한종철, 이기학(2001). **학습상담 전문가 자료집**. 서울: 연우심리연구소
- 김만권, 한종철, 이기학(2002). **학습상담 전문가 활용가이드**. 서울: 연우심리연구소
- 김명희(2003). DISC 행동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자녀양육행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경(2013).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생활만족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택(2002). 부모의 성격특성과 자녀의 공격성 간의 상관성. 순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필(2002). 부모의 성격특성과 자녀의 공격성 간의 상관성.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1999). 학습양식의 유형 및 구성요소와 교육 과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하(2007). 학습성격유형이 수학학습전략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환(1999). **현대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김하나(2009). 학습 성격유형에 따른 수학불안에 관한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1996). 성격유형과 학습기술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 유안진(2009). **인간발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권선방(2008). Keirsey 이론에 의한 중·고등학생용 학습유형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도영(2000). 학구적 지·정·의 와의 성취도의 인과구조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환 외(2011). **내가 하는 통계분석 SPSS**. 서울: 학지사
- 박지민(2010). 초등학생의 학습유형, 학업성취도, 체계화하기 간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윤정(2005). 중학생의 학습성격유형과 수학 영역별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브리티니커회사 편집부(2008). **브리티니커 백과사전 CD IX**. 서울: 한국브리티니커회사
- 서영근(2002). 학습성격유형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전략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대영, 최현섭(20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송지준(2008).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서울: 21세기사
- 신기철(1980). 초등교원 교육과정의 중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은정(2001). HSV-TK 유전자가 발현된 신경모세포종의 Bystander 효과.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선(2004). 부모-자녀 성격유형의 일치와 불일치에 따른 애착수준 및 의사소통유형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철기(2007). 초등학교 고학년용 학습양식개발 및 타당화.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성자(2006). 학습양식과 교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부영(1998). **분석심리학(C. G. Jung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 이윤선(1995). 성격유형 및 학습양식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창재(1994). 학습양식을 형성하는 가정환경의 과정변인 탐색.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진(2009). 교육대학생의 학습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숙(2001). MMTC 성격유형과 학습동기 및 학습 습관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연정(2012). 초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몰입의 특성.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미탁(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창림(200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인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경남(2009). 중학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성격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선애(2007).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격 차이와 문제행동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태심(2002). 고등학생의 성격유형이 학습전략 선호에 미치는 영향: MBTI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5). 2005년 교육정보화백서.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황운구(2007). 학습유형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학습 성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경자(2004). **청소년의 인성교육**. 서울: 학지사
- Catherine Collin(2012). 이경희, 박유진, 이시은 역(2012). **심리의 책**. 서울: 지식갤러리
- Diane Heacox(1991). 김만권, 정민정 역(2004).. **학교성적 끌어올리기**. 서울: 이지북
- Keirse, & Batys, M.(1978). 정혜경 역(2005). 나를 제대로 아는 법 남을 확실히 아

는 법. 서울: 행복한마음

- Allport, G. W. (1937). *Personality :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Y: Holt.
-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Inc.
- Bloom, S. R.(1978). Inhibition of secretin stimulated pancreatic secretion by pancreatic polypeptide. *Gut* 20, 37-40.
- Bratko, D. & Marusic, I.(1997). Family study of the big five personality descrip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 365-369
- Cattell, R. B. (1943). The description of personality: Basic traits resolved into cluster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38, 476-506
- Diane Heacox(1991). *Up from under achievement: How teachers student and parents can work together to promote student success*. Minneapolis MN: Free spirit publishing Inc.
- Dunn, R. S.(1981). Learning style researchers define differently. *Educational Leadership*. 38, 372-375
- Dunn, R., & Dunn, K.(1992). *Teaching elementary students through their individual learning style: Practical approach for grades 3-6*. Boston Ma: Allynand Bacon.
- Dum, R. S.(1986) Learning style : *State of science, theory and Practice*, 24(1), 10-19r
- Francesco. C.,& Paolo P. & Olivis S(2005). *Evidence-based Research i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 History*. eCam Vol 106. Oxford University.
- Grasha, A. F., & Reichmann, R. E.(1974). A rational approach to developing and assess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a student learning style scales instrument. *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19, 46-54
- Golay, K. (1982). *Learning Patterns and Temperament Styles*. Fullerton, CA: MANAS-SySTEMS
- Keirse, D. & Bates, M. (1982). *Please understand me : An Essay on*

- Temperament Styles*. Del Mar, CA: Prometheus Publishers.
- Krimsky, J. S.(1982).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match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John's University.
- Pask, G.(1976). Styles and strategies of learning.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46
- Previn (1980). *Bog-Trotter : An Autobiography with Lyrics* Ma: Allynand Bacon.
- Siegelman, C. K. & Rider, E. A.(2003). *Life-span human development*. CA: *About behaviorim*. New York : Knopf.
- Tuijl, C. A. G.(2005). Parent-Offspring similarity in personality and adolescents'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9, 51-68
- Woolfolk, B. J.(1995). *Educational Psychology*. Boston, Allyn & Bacon.

<Abstract>

Children's Behavior based on Consistency of the Parents-Children' Personality and Their Behavior

Hyun, Yong Ch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ung Hwa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behavior type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parents which is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 of a family.

We listed on questions to mee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First, are there differences with the distribution of personality typ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Second, are there differences with the distributions of behavior typ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ird, are there differences with the distribution of behavior type according to parents-children' personality?

Fourth, are there differences with distribution of behavior type according to parents-children's accordance of personality type.

Fifth, are there differences with the distribution from child(children)'s behavior style according to parents-children's accordance of behavior type.

To archive the purpose of a research, we have selected 240 parents and 240 middle school children which is total 480 people who went through the UI psychological test which processed from 2011.1.1 to 2013.3.31 in Jeju island.

Analysis of the data have been processed by SPSS 18.0 program.

As a consequences of the research, it shows there are differences with the distribution of learning personality typ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s style. Actual-Routine Learner type reaches the highest point with 49.6% for the parents while Actual-Spontaneous Learner type reaches the highest point with 40.4% for the children.

In terms of gender of middle school students, behavior type reaches the highest point with 43.7% for male students while Conceptual-Global Learner type reaches the highest point with 45.6% for female students.

It also shows the meaningful differences in a statistic with parents-children's distribution of behavior style. The Complacent Learner type reaches highest point with 59.2% for the parents and 31.7%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It shows that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t with behaviour type which comes from parents-children personality type. In case of Actual-Routine Learner type, both are pretty high with 69.7% for the parents, children for 55.6%. The distribution of children's learning behaviour type shows meaningful different according to accordance of parents-children's learning personality type. The Complacent Learner type show 36.4% for accordance while 29.9% for discordance. The difference of children's distribution of learning behaviour type is meaningful according to accordance or discordance of parents-children's learning behaviour. The distribution of The Complacent Learner type shows 78.9% for accordance while 16.9% for discordance. It also shows that The Struggling Student tpye reaches 26.8% which is the highest point for discordance learning behaviour tpye.

As a consequence, we assume that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young and adults causes the difference with distribution of learning personality type between parents-children. It implicates that the difference with distribution of

learning behaviour comes from the experience with which middle school children got help of learning method rather than adults. We can have a conclusion that The Complacent Learner type showing the high point for parents-children are caused by a trait which people follow the korean traditional regulation and rule of school.

It is difficult to give a significant conclusion for learning behaviour type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because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with The Complacent Learner type. As you see, middle school children's The Complacent Learner type takes much account in distribution, so that accordance of learning behaviour contributes to the emotional st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for the children.